

물 만난 ‘87년생 토끼’들 폭풍 질주

황인혁, 올 첫 결승 2바퀴 선행 우승
정종진은 사흘 연속 ‘가벼운 추입승’
박용범·엄정일·류재열 등도 상승세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가 같은 시기에 대거 등장해 뛰어난 경기력과 성과를 거둘 때 ‘황금세대’라는 표현을 쓴다. 대표적으로 야구에서 박찬호, 임선동, 조성민, 정민철, 박재홍 등이 속한 92학번과 추신수, 이대호, 김태균, 오승환, 정근우 등이 있는 82년생들이 대표적인 황금세대다.

이런 황금세대는 경륜에도 존재한다. 바로 토끼띠인 87년생들이다.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토끼띠 선수들이 시즌 초반부터 뛰어난 기량을 과시하며 황금세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87년생인 황인혁(21기 세종)은 지난해 2018년 7월부터 유지해온 슈퍼특선(SS반)에서 내려오는 등 부침이 심했다. 그랑프리 준결승에서도 친구인 정종진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5착에 그치며 결승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황인혁은 새해 첫 결승이었던 8일 광명 1회차에서 깜짝 반전을 선보였다. 이날 팬들의 시선은 그랑프리 결승까지 진출했던 양승원과 전원규에게 집중됐다. 초주 자리 잡기가 여의치 않던 황인혁은 선두유도원 퇴파와 동시에 대열 맨 앞쪽으로 나왔다. 그리고 친구인 김형원을 방패삼아 시속을 올리기 시작



2023년 기묘년 토끼해를 맞아 경륜의 ‘황금세대’로 꼽히는 87년생 토끼띠 선수들의 활약이 시즌 초부터 돋보인다. 지난해 다소 부침을 겪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올해는 시즌 초부터 과감한 두 바퀴 선행 우승 등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는 황인혁(왼쪽)과 87년생 황금세대를 대표하는 스타로 지난해 임채빈과의 그랑프리 맞대결에서 우승한 정종진.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했고 주도권을 뺏긴 양승원, 전원규는 3코너 지점에서 쫓히기를 시도했으나 황인혁을 넘는 데 실패하며 각각 2착과 5착에 그쳤다.

황인혁은 선행형 강자로 명성을 날리다가 어느 시점부터가 마크추입 빈도수가 높아지며 하향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이날 경주는 깜짝 두 바퀴 선행 우승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87년생 토끼띠의 대표스타인 정종진(20기 김포)은 명불허전이었다. 라이벌 임채빈과의 명승부 끝에 그랑프리 트로

피를 다시 찾아온 정종진은 광명 2회차에서도 여유가 있었다. 그랑프리 5회 우승의 정종진에게 반기를 든 선수는 보이지 않았고 금요일 김범수, 토요일 정태양, 결승 정정교의 선행을 차분히 추주했던 정종진은 3일 내내 가볍게 추입승을 챙겼다.

역시 87년생인 박용범(18기 김해), 엄정일(19기 김포), 류재열(19기 수성), 김형완(17기 김포)도 본인들의 위치에 맞는 무난한 활약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박용범은 3회차 금요경주 2착에 머물러

아쉬움을 주기도 했지만, 1회차 금, 토 경주에서는 추입 2연승으로 이듬값을 했다. 류재열도 인기순위 2위로 출전했던 1회차 금, 토 경주에서 2착을 지키며 결승까지 진출했다.

2회차에 출전했던 엄정일도 토요일 경주 3착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으나 금, 일 경주에서는 특유의 추입력을 앞세워 2승을 챙겼다. 마크력이 탁월한 김형완도 1, 2회차에 연속출전에 2착 4회의 성적을 남겼다.

황인혁과 락동갑인 같은 토끼띠로 세종팀 후배인 신인 구본광(27기 24세 세종)의 활약도 빛났다. 구본광은 2회차 13일 데뷔전에서 신앙우를 밀찌감치 따돌리는 타종선행으로 첫 승에 성공했다. 인기순위 2위로 출전한 토요일 경주도 우승후보였던 임요한의 추입을 여유 있게 막아내는 막강 선행력을 과시했다.

구본광은 자기보다 훈련원 순위가 높았던 27기 동기 이성록, 김광오를 만난 15일 결승에서도 변함없이 선행을 고수했고 200m 랩타임에서 우수급 강자들의 시속을 능가하는 11초47로 끊으며 전망을 밝혔다.

예상지 경륜박사 박진수 팀장은 “수년간 경륜장을 호령했던 87년생들은 36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선수들이 현재도 특선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묘년 시작과 함께 황인혁, 정종진이 차례로 결승전을 점수하는 등 올해도 변함없는 활약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정 경주 결과 추리에 큰 영향” 확정검사·소개항주를 주목하라

경정에서 경주 결과 추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정검사와 소개항주 기록이다. 성능이 좋은 모터를 배정받아도 확정검사와 소개항주 기록이 좋지 않게 나오면 입상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반면 중급 이하의 모터라도 최상급 모터와 시속이 엇비슷하게 나온다면 입상 가능성을 꼽아볼 수 있다.

확정검사는 출전 선수들이 배정된 모터와 보트를 결합해 화요일 지정연습 때 실제 경주에 적합한지를 점검한 기록이다. 측정 기준은 백스트레치 센터에서 2턴 마크까지 150m의 거리를 주행한 시간이다. 1차와 2차로 나누며 각각 확정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기록 변화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정검사는 모터와 보트의 객관적인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선수 기록측정 후 정비를 통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실제 경기 전까지 최종적인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정확한 경주 추리에 도움이 된다. 경주 당일인 1일차 수요일과 2일차 목요일에도 지정연습을 하기 때문에 입소 시점부터 마지막 날까지 확정검사 기록을 비교 분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 회차의 지정연습과 확정검사 기록은 인터넷 경정 홈페이지의 경주자료실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확정검사가 실전 경주를 위한 준비라면 소개항주는 경주당일 출전을 앞두고 자신의 모터 상태를 보여주는 시간이다. 소개항주 기록은 해당경주 직전에 6명의 선수가 수면 위를 전속력으로 주행 후 확정검사와 같은 150m 거리를 활주한 시간이다.

선수의 체중과 모터보트의 세팅, 어떤 프로펠러를 장착했느냐에 따라 소개항주 기록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모터의 기력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때문에 소개항주 기록이 상대적으로 빠른 선수가 해당경주를 주도해 나감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속력에 비중을 두어 기록만 빠른 선수가 있을 수 있고, 이와 달리 선회력을 극대화한 선수는 기록이 다소 처질 수 있다. 따라서 소개항주만 믿고 추리와 선택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조건과 컨디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재범 기자

편집 | 한민구 기자 stopspe@donga.com

치열한 선두다툼 명승부…‘제2 전성기’ 여는곽현성

경정 산전수전 다 겪은 1기 베테랑
2013년부터 매년 두자리 승수 기록
“대상경주 우승 목표로 최선 다할것”



곽현성

경정의 대표적인 베테랑인 1기 곽현성(51세 A1)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증명하듯 요즘 주목할 경기력을 보여 주면서 팬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곽현성은 지난 2회 2일차(12일) 9경주에서 치열한 선두다툼으로 이어진 명승부를 펼쳐 관람객의 감재를 받았다. 이날 곽현성은 1코스에 출전해 0.08초로 스타트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강성 모터를 탑재한

4호정 주은석(57기)과 결승선까지 1착을 놓고 접전을 벌였다. 곽현성은 올 시즌 6회 출전에 1착 3회, 3착 1회로 승률 50%, 삼연대율 66.7%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스타트도 0.17초로 호조세다. 곽현성은 “목 디스크 수술 이후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한동안 고생했지만 최근 자신 있게 경주를 하다 보니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 같다”며 “지난 시즌 반격경고로 출전기회가 줄어들어 아쉬웠는데 올 시즌은 안전한 경주를 통해 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나이가 대상경주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곽현성은 경정이 시작된 해인 2002년 1기로 입문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수생활을 그만둔 동기나 후배들도 있지만 아직도 젊은 신인선수들과 당당하게 맞서며 경주를 주도하고 있다.

곽현성의 데뷔 첫 해 평균스타트는 0.43초로 타선수를 압도하기보다는 차분한 전개로 풀어가는 선회형 선수로 11승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인 스타트 보완을 위해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한 결과 2004년에는 0.32초의 평균스타트로 39승을 차지하며 다승왕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를 계기로

2006년 45승을 기록했고 2007년에는 47승으로 다시 한 번 다승왕 타이틀을 재탈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1년 9승, 2012년 7승으로 이틀에 걸맞지 않는 성적을 보였다. 고전의 원인은 출발위반(플라잉)이었다. 이후 예전의 강자로 돌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정신무장으로 다시 기량을 끌어올렸고 그 결과 2013년부터는 매년 두 자리 승수를 기록했다. 올 시즌 3회 차가 지난 현 시점 개인 통산 421승으로 전체 랭킹 5위를 달리고 있다.

이서범 경정코리아 분석위원은 “최근 스타트에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예전의 전개력까지 살아나고 있다. 시즌 초반이지만 최근 보여준 끈끈한 승부근성과 경주운영의 노련함까지 살아나고 있어 올 시즌 주목해 볼 만한 선수”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강민구의 4전5기…프로당구 PBA투어 생애 첫 우승



강민구가 24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웰빙 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4-2로 웅고 딘 나이 꺾고 정상
2점짜리 뱅크샷만 16개 ‘괴력’

4전5기. 마침내 PBA 투어 정상에 오르다. 강민구(39·블루윌리조트)가 5번 도전 끝에 생애 처음으로 프로당구 PBA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강민구는 24일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승센터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웰빙 PBA-1PBA 챔피언십 PBA 결승전에서 웅고 딘 나이(베트남·SK렌터카)를 세트 점수 4-2(14-15 15-6 2-15 15-7 15-9 15-5)로 꺾고 정상에 올라 상금 1억 원과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강민구는 프로당구 출범 이후 첫 투어였던 PBA 파나소닉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2020-2021시즌까지 2등만 4번을 해 ‘비운의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강민구가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일

등공신은 뱅크샷이었다. 결승에서 한 번에 2점짜리인 뱅크샷을 16개나 성공했다. 결승전에서 얻은 76점 가운데 32점을 뱅크샷으로 채웠다.

강민구와 웅고 딘 나이의 결승전 승부의 분수령인 5세트였다.

강민구는 5이닝까지 2-9로 끌려가다가 6이닝에서 3연속 뱅크샷을 묶어 단숨에 동점을 만든 뒤 두 차례 뱅크샷을 앞세워 6점을 추가해 5세트를 제압했다.

분위기를 탄 강민구는 6세트도 두 차례 뱅크샷을 포함해 6-0으로 크게 앞섰고, 6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다.

강민구는 “우승 직후 소름이 돋았다. 최근 2년 동안 성적을 내지 못해서 스스로 용납이 잘 안 됐다”며 “남은 대회인 8차 투어와 포스트시즌도 잘 준비하고, 월드챔피언십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모리카와·스콧도 ‘TGL’ 합류

우즈 창설 ‘스크린 골프리그’ 내년 출범

폴린 모리카와(미국)와 애덤 스콧(호주)이 2024년 1월 출범 예정인 스크린 골프리그 ‘TGL’에 합류키로 했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25일(한국시간) 두 선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TGL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힘을 합쳐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인 새로운 개념의 스크린 골프리그다. 우즈와 매킬로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후원을 받아 출범한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LIV 골프)에 대항하기 위해 TGL을 창설키로 했다. 모리카와와 스콧이 추가 합류키로 하면서 TGL은 이미 참여키로 한 온 램(스페인), 저스틴 토마스(미국)에 이어 또 다른 ‘빅네임’ 영입에 성공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 3명씩 6개 팀이 스크린 골프를 겨루는 TGL은 매주 월요일 15차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정상급 선수 18명이 대회가 열리지 않는 월요일에 경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매킬로이가 주도하는 스크린 골프리그 ‘TGL’이 25일(한국시간)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한 애덤 스콧(왼쪽), 폴린 모리카와 합류 환영 이미지.

사진출처 | TGL SNS

기를 치르면서 거액의 상금을 나눠 갖게 된다. LIV 골프의 ‘돈 폭탄’에도 PGA 투어에 잔류한 정상급 선수들에게 금전적 보상 청구 역할을 맡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한때 LIV 골프 이적설이 돌았던 스콧은 최근 잔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TGL에도 합류키로 하면서 새로운 ‘PGA 투어 지킴이’로 떠올랐다. 스콧은 2013년 마스터스를 포함해 PGA 투어 통산 14승을 거뒀고, PGA 챔피언십과 디오픈 등 메이저대회에서 2차례 우승한 모리카와는 통산 5승을 기록 중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